

흉물 앞에 다시 선 유가족들 비통…눈물로 ‘안녕’

400여명 무안공항 활주로 찾아

12월 태어난 희생자 16명 ‘축하’

전하지 못한 편지 불태워 하늘로

헌화·목념 통해 평온·명복 기원

“안녕히들 가십쇼… 안녕히…”

29일 오후 2시15분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끝 단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은 1년 전 여객기 가 충돌해 무너져 내린 상태 그대로였다.

활주로 뒤편에서 바라봤을 때 다른 곳과 달리 구멍이 뚫린 부분은 흙과 콘크리트 등 파편이 흘러내린 채 쌓여 작은 언덕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도 했다. 충격의 여파로 옆 가락처럼 훈 절제 울타리와 뚝 끊긴 안테나, 처리되지 못한 잔해는 모두 그대로였는데, 둔덕 주변의 풀만 누렇게 자라 1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을 상기시켰다.

버스 9대에 나눠 탔고 온 400여명의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이 흉물(凶物)을 다시 마주하고 선 한을 토해냈다.

지팡이에 몸을 지탱한 채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던 한 어르신은 로컬라이저 앞에 서서 “내 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29일 오후 무안공항 활주로를 찾은 유가족들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주변에서 헌화와 목념 등으로 희생자 179명의 넋을 기리고 있다.

/연재영 기자

들을 내놓으라”고 울부짖었다.

다른 유가족들도 희생자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울음 섞인 외침은 활주로 상공에 흩어졌다.

마음을 주스른 후 로컬라이저 앞에 모인 유가족들은 먼저 179명의 희생자 중 12월에 태어난 16명의 생일을 축하했다.

딸과 아내를 한 달한시에 떠나보낸 김성철씨가 대표로 케이크의 불을 끄자 유가족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더는 나이를 먹을 수도, 함께 앉아 식사를 나

눌 수도 없는 이들에 대한 축하 노래가 구슬프게

울려 퍼지면서 유가족들은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리며 떠나간 이들을 그리워했다.

슬픈 축하를 마친 유가족들은 눈물로 쓴 편지를 한 곳에 모아 불태웠다. 살아생전 전하지 못한 말과 한 번이라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쓴 이 편지가 하늘에는 달길 바라는 마음에 서 있다.

유가족들은 서서히 재로 변하는 편지 주위로 흰 국화를 두고 목념이나 기도로 희생자들의 넋

을 위로했다.

헌화를 마친 한 유가족은 하늘을 향해 “안녕히 가십시오”를 세 번 외치고선 통곡했다. 다른 유가족들도 감정이 북받치는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거나 주저앉아 땅을 내리치기도 했다.

모든 유가족의 헌화가 끝난 후에는 로컬라이저 주변을 잠시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유가족들은 잔해를 만져보거나 파손된 로컬라이저를 눈에 담으며 너도나도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기원했다.

고재승 유가족협의회 이사는 “돌아가신 첫 생일은 쟁겨드리는 거라고해서 여태 그때왔지만 12월은 준비가 좀 늦었다”며 “내년에도 희생자들에게 대한 생일 축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0분에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은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공항 시설물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연재영 기자

“항철위 독립·객관적 조사” 진상규명 촉구

민변 광주전남지부 성명 발표

민노총 광주본부 “진실 밝혀져야”

민주당 광주시당은 추모 논평

179명이 희생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29일 “12·29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12·29 참사 1주기 성명을 내 “사고 조사를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179분이 돌아오지 못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피해배상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며 “항철위는 유가족의 동의 없는 공청회를 강행하려다 철회함으

로써 혼란을 초래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참사는 기체 결함, 조류 퇴치 실패, 관제 실수, 방위각제공시설(로컬라이저)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등 다양한 원인이 기여한 사회적 중대 사민 참사”라며 “조사의 독립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 항철위는 국토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면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 희생자 179명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른 시간 내에 사고 원인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노총 광주본부도 성명을 통해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항철위가 국제 규정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참사의 원인을 조종사 개인과 실로 축소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항 안전시설인 로컬라이저가 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먼저 밝혀낸 점을 들어 “조사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

손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유가족들은 여전히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 없이는 같은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유가족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추모 논평을 내

“참사를 둘러싼 진실과 책임에 대한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성실한 답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애도는 공허한 말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전문기구인 항철위를 국토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법률안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

/연재영·윤찬웅 기자

“그곳은 춥지 않길”…광주서도 추모 행렬

송정역 내 디지털 분향소

전일빌딩245·남구청 등에

헌화·방명록 작성 이어져

“1년이 지났지만, 그 날의 놀림과 슬픔은 생생합니다.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오전 11시께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승강장 한편에는 디지털 분향소가 마련돼 있었다.

이 분향소는 ‘기억하라 12·29, 막을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 밝힐 수 있다’를 주제로 1주기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국토부가 지난 2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운영 마지막 날이자 추모 1주기를 맞은 이날 송정역을 분주하게 오가던 이들은 ‘12·29 여객기 참사 1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고 선발걸음을 멈췄다.

일부 시민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후 전자 칠판에 위로의 말을 남겼다.

한 시민은 방명록에 ‘진실규명이 안전하게 착륙되길 기원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귀

를 남기고 잠시 묵념하기도 했다.

열차출발 시간이 임박한 틈에 QR코드를 활용한 후온라인 추모관에 글을 남기는 이들도 있었다.

‘대참사에 마음이 아픕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윤혜영(40대·여)씨는 “참사 당시에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모두가 슬퍼했는데, 시간이 지나 잊혀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또 비슷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많은 이들이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추모 행렬은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와 남구청에서도 이어졌다.

전일빌딩245를 찾은 이들은 흰 국화꽃 한 송이를 받아 분향하고 희생자 179명의 영면을 기원했다.

분향소 옆 벽면은 추모객들이 쓴 ‘그곳에서는 부디 춥지 않길 빌겠습니다’, ‘안전한 사회가 되길’ 등의 메모지로 채워졌다.

남구청 1층 안내데스크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도 시민들은 헌화와 방명록 작성 등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과거 무언에 거주했다는 김모(30대)씨는 “179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사고 당일 시간이 멈춰버린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붉은 눈시울로 말했다.

/서형우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 6만배송 (기타 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 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